



1년과 6개월 과정의 전문과정은 각각 35명의 정원으로 구성돼 강도 높은 실기를 가능하게 한다.

# 다양한 경험 축적으로 현실을 배우는 곳

밝고 경쾌한 분위기가 신세대 감각과 적절히 어울리는 리치몬드제과기술학원은 요즘 흔한 말로 '신홍 명문'이다. 수준 높은 시설과 과학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어울려 개원 했수로는 이제 막 첫 돌을 넘어서고 있지만 업계의 유능한 인재를 배출한다는 측면에서는 타 학원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고 있다.

학원운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정윤용 부장은 교육목표를 기술교육과 전인교육이라고 밝혔다.

“학원은 학교와 달라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제적 제제가 어렵기 때문이지요, 학생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교육기관으로서 권위를 갖기위해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그가 말하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리치몬드 학원은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곳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규반 학생들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술 못지 않게 전인교육도 중시

이는 업계인사증 세인의 인정을 받는 사람을 초빙해 제과현장에 대한 얘기를 듣고 기술인으로서 갖춰야 하는 덕목 등을 정신교육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이 학원 원장인 권상범씨의 생각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인지 그

## 학원 탐방

# 리치몬드제과기술학원

현장감 있는 교육, 이론에 치우친 죽은 교육을 거부하는 것은 리치몬드 학원의 가장 큰 교육적 특징이다. 그 속에서 개인의 창의력이 마음껏 발휘된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신나는 일이다.

학생들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개인사무실 및 탈의실, 냉난방시설 등은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또다른 조건이다.



직접 강사로 초빙돼 학생들과의 대화시간을 갖는다. 주로 그가 강조하는 얘기는 실천하는 생활과 스스로의 능력을 키우는 문제이다.

“해보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님에도 부딪히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직접 몸을 움직이는 것만이 인생에서 소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편입니다. 또한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만족하지 말고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 것이 진정으로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직접 밝히는 인생관이다.

한편 6개월과 1년과정의 전문과정 학생들의 기술교육이 지나친 이론에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사들의 자질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다.

이미 임영래, 김성일 두분의 선생님이 각각 과자와 빵과정을 분담해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전문성을 살리도록 했고 정윤용 부장이 이론을 문해진 선생이 취미반을 책임지고 지도하고 있다. 그외에도 이 학원의 졸업생인 이예경씨가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해 선생들에게 돌아가는 과중한 부담을 줄이도록 배려했다.

이외에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선생님들의 해외연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미 임영래 선생이 본협회에서 주최했던 일본과자전문학교 기술세미나에 참석했고 김성일, 문해진 선생이 방학을 이용해 해외연수를 다녀올 계획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해외 선진기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프랑스 루앙 국립제과학교를 방문할 예정이다. 방학을 이용해 6박 7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다녀오기는 하지만 그곳 학교에서 직접 기술지도도 받고 학생들이 스스로 일반 교통 수단을 이용해 프랑스의 유명제과점을 찾아 다닐 이번 여행은 학생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준다는 목적외에도 학원 수료후 유학을 계획 중인 이들을 위한 사전 답사의 의미도 크다고 밝혔다. 여름 방학 연수는 이번 겨울에는 일본 제과기술을 돌아보는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절름발이 교육이 되지 않도록 현장 교육을 강조하는 또 다른 예는 초빙강사 제도를 들 수 있다.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인을 초빙해 요즘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리치몬드 학원은 이와같은 정규교육 외에도 현직 기술인들을 대상으로 비정규 과정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개원세미나를 비롯해 격월제로 진행되는 이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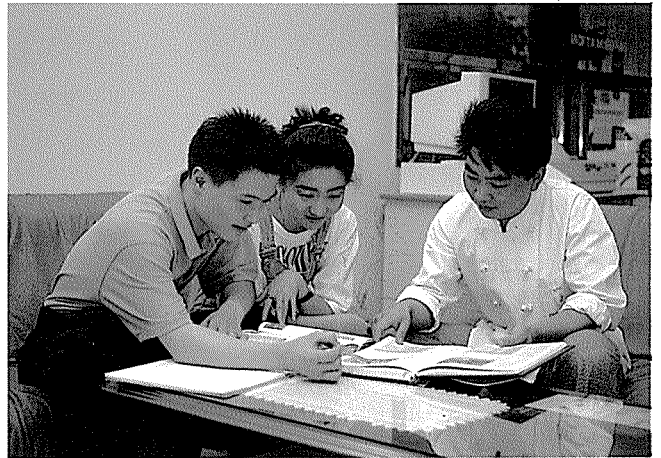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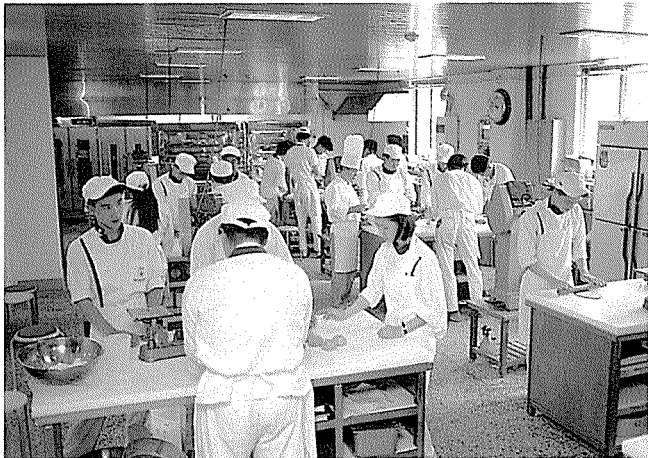
각자의 전문분야를 나눠서 진행하는 수업은 학생들에게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해줄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미나는 해외 유명 기술인들을 초빙하는 것 외에도 국내 유명 기술자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이는 외국기술 의존도가 높은 국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외에도 국내 기술인들에게 자신의 기술을 발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는 취지가 더 크다고 한다. 서로의 기술을 발표하는 기회를 통해서 '격려와 비판'이 오가는 기술 풍토를 조성하겠다는 생각에서다.

### 현직 기술인들이 자신의 솜씨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제공

머리에서 발끝까지 통일된 복장은 기술을 배우는 학생들의 자세와 정신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제품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것으로..." 아직은 이들에게 신기하기만 제품을 열심히 설명하는 김성일 선생님의 표정이 진지하다.



### 인터뷰



원장 권상범

"기술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체계적인 빵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욕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역시도 기술을 배우면서 항상 생각했던 것이 교육에 대한 욕심이었습시다." 이제는 그의 지난

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인 안정이 선행되지 않는한 질이 떨어진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는 리치몬드 학원이 새로운 기술인을 양성

### "대화가 오가는 기술인들의 열린 마당을 만들 계획"

날 욕심을 후배들에게 되돌려 주고 있는 권원장의 말이다.

그러나 그는 교육기관에 대한 생각을 꼭 20년 동안 욕심으로써 품고 있었다고 한다. 교육은 개

하는 목적 외에도 현직 기술인들의 발표장이 됐으면 한다는 욕심을 밝혔다. 끊임없는 반복적 기술연마와 연구가 몸과 머리를 함께 사용할 줄 아는 기술인을 만들 수 있다는 신념 때문이다.